

주민·지자체·환경부 “건설계획 철회” 朴대통령 “국민께 큰 실망 드려 송구”

이슈 현장 지리산 내서댐 건설 논란

**국토부 “여수와 광양에 공업용수 공급”
8개 마을·피아골 절경·문화유적 수몰**

13일 오전 11시,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지리산 자락에서는 영등가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반야봉에서 발원해 단풍계곡 피아골과 천년고찰 연곡사를 거쳐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내서천을 끼고 살아가는 이곳 마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13일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조성된 어도(魚道)로 피아골의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곳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리산 내서댐이 건설되면 물에 잠기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지만 철 따라 자연이 내주는 나물과 야채를 따고, 차와 매실을 재배하며 평화롭게 살던 이곳 주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최근 정부가 내서천에 내서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 내서댐 위치와 수몰예정지역

이날 마을에서 만난 김옥희(여·58·신촌마을 이장·내서댐추진반대위원회 사무국장)씨는 “산에서 나오는 나물과 약초가 하도 많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 느닷없이 댐을 지어 마을이 물에 잠긴다고 하니 한숨만 나온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댐 건설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2000㎡ 용수 부족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총사업비 3562억원을 들여 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내서댐의 규모는 나주호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피아골 일대 0.7km가 잠기게 되고, 인근의 기촌, 중기, 신촌, 원기, 남산, 평도, 당치, 직전 등 8개 마을 794명이 정든 집을 잃게 된다. 댐이 들어서면 외곡리에서 연곡사 4km 아래까지 물에 잠기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전남도, 구례군 의회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의 내서댐 건설 방침에 대해 전남도는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의회도 내서댐 건설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주민들은 8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내서댐추진반대위원회를 꾸려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정부도 부처 간 이견과 전남도의 반대, 주민 반발에 밀려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내서댐을 비롯해 지리산에 들어서는 2개의 댐 건설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 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홍수조

‘윤창중 성추행’ 사과... 이남기 수석 사표 수리될 듯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 “이번 밤이 일정 밤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윤 전 대변인의 직속상관으로 사건의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의를 수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박진기자jpk@kwangju.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일로 동료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12일 민주당 지도부와 의 만찬에서 새 정부 조각 과정에서 빚어진 장·차관 낙마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일은 있으나, 국민에게 직접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허태열 비서실장의 전날 대국민사과에 이어 또다시 사과를 한 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는 이번 사태의 파문이 더욱 커질

5·18로 더 탄탄해진 ‘달빛동맹’

김범일 대구시장·이재술 의장 기념식 첫 참석
내달 대구 식품산업전 광주 10여개 업체 참가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맺고 각종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5·18 기념식’을 계기로 각종 공동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2017년 월드컵베이스볼클래스 공동유치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미래형 치과벨트 공동 구축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이 담긴 ‘달빛 동맹 아젠다’ 사업을 공동 발굴해 추진중이다. 지난 4월에는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도 양 도시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13일 광주시와 대구시에 따르면 김범일 대구시장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경북지역 현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참석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 양 도시 식품산업의 교류·협력을 위한 민간차원 협력 프로젝트인 ‘달빛동맹’이 들어선다. 광주에선 10여개 식품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양 도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대구(달구벌)와 광주

지난 3월 27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1일 교차근무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5·18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제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광주일보 3월 28일자 1·2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수도권의 비경쟁적인 비대화를 막기 위해 광주와 대구가 연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김 시장의 5·18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광주와 대구의 공동 발전 사업들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기자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3 코리아

신안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신안군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 일원
5월 17일~19일까지 (3일간) 본행사 및 부대행사 개최

대회일정 5월 18일 07시 부터 24시까지
폐회식 5월 19일 11시부터

부대행사
신안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엑스포 개최, 신안천일염, 자은특산물 명품, 대파, 마늘 등 참가선수, 가족 및 지역민과 함께 하는 열기구 체험, 갯벌체험 행사 운영
대회 참가자 및 가족은 신안군 섬 방문시 숙박비 50%를 상시지원(남해안 관광 활성화 지원)
대회운영본부 | 010-2604-9024

주최 | 전라남도 신안군
주관 | 국민생활체육 전남철인3종경기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남연합회
 국민생활체육신안군연합회